

# 『지식인과 사회』-저자의 辯

이영석

## I.

오랫동안 잉글랜드와 갈등을 겪어온 스코틀랜드는 18세기 초 잉글랜드에 합병된다. 그러나 같은 세기 중엽 이 작은 나라에서 전개된 지식인운동이 근대성에 관한 담론을 주도하고 19세기 영국 문화의 주류를 형성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시기 문화운동은 흔히,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이라 불린다. 물론 데이비드 흄, 애덤 스미스, 애덤 퍼거슨 등 개별 문필가들은 널리 알려졌고 이들의 사상과 학문에 대한 연구도 다량으로 축적되었지만, 그 활동은 오랫동안 영국 문화의 일부로 여겨왔다. 이 지식인운동을 18세기 후반이라는 특정한 시기, 스코틀랜드 고유의 지적 활동으로 이해하려는 연구경향은 근래에 나타났다.

이 책은 18세기 중엽 에든버러를 중심으로 활동한 지식인들을 집단적으로 살피려는 시도다. 개별 문필가를 상세하게 다룬다기보다 그들의 정신세계와 사회이론을 그들이 호흡하고 활동했던 시대적·공간적 조건과 관련 지어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18세기 중엽 스코틀랜드 지식인집단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이라고나 할까.

## II.

필자는 이 책 1장에서 18세기 중엽 에든버러라는 도심 지역의 풍경을 스케치한 다음, 2-4장에서 각기 스코틀랜드 장로교운동과 대학의 변화, 합병 이후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갈등 및 재커바이트 반란, 18세기 후반 잉글랜드에서 나타난 사회경제적 변화의 구체적인 실상 및 그 변화에 대한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의 인식을 검토한다. 그 내용을 개략하면 다음과 같다.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을 낳은 지적 기반은 이 지역의 대학제도에서 마련되었다. 16, 17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교회 자체의 개혁에서 더 나아가 대학 교육을 통해 이 지역 젊은이들이 영적 갱신과 함께 새로운 지식과 도덕을 고양하기를 소망했다. 이들의 영향을 받아 새로운 학문을 배우려는 젊은이들이 대학에서 지식을 쌓는 데 전념했다. 18세기에 에든버러, 글래스고, 애버딘, 세인트 앤드루스대학의 명성은 전 유럽에까지 널리 퍼졌으며, 잉글랜드와 대륙 출신들도 이곳에서 교육받기를 원했다.

18세기 스코틀랜드의 새로운 지적 운동은 1707년 잉글랜드와의 통합이라는 정치적 상황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합병과 하노버왕조 등장 이후 스코틀랜드 민족주의자들은 이전 스튜어트 왕조 복위운동을 일으켰으며, 이 운동은 1745년 대규

모 군사적 충돌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이 재커바이트(Jacobites) 운동은 실패하고 커다란 좌절을 낳는다. 어떻게 보면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은 왕조복위운동 실패 이후 스코틀랜드 지식인들의 새로운 대응방식을 반영한다. 이제 스코틀랜드는 더 이상 잉글랜드와 정치적인 면에서 대결을 고집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당대 지식인들 사이에 타자로서 잉글랜드의 이미지가 순화된 것만은 아니었다. 정치적으로 브리튼에 통합되어 있으면서도 잉글랜드와 다른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이중적인 성향이 계몽운동에 깃들어 있다. 정치적 좌절을 브리튼의 새로운 정체성 형성으로 이어간, 문화적 승화라고도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의 성취는 문명의 중심이 아닌 주변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지리적 위치'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산업화 초기에 스코틀랜드는 잉글랜드에서 일어난 새로운 사회경제적 변화에 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 변화의 진원지에서 약간 떨어져 있었다. '중심'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는 대체로 중심보다는 그 변두리에서 오히려 좀 더 빨리 발견되고 또 더 분명하게 보이기 마련이다. 스미스가 노동이 부의 원천이라는 관점에서 국민경제를 이해하려고 한 것이나, 또는 퍼거슨이 시민사회라는 새로운 개념을 통해 산업사회의 변화를 인식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 III.

이 책 5장은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에 대한 사회사적 접근을 강조한 저자 의도를 강하게 드러내는 부분이다. 18세기 중엽 이후 수십 년간 에든버러는 교양 있는 식자층을 중심으로 토론문화가 정착되었다. 이를 보여주는 스미스의 유명한 예화가 있다. 그가 글래스고대학에서 도덕철학 교수로 재직하던 18세기 중엽, 그 당시에는 일요일만 제외하고 매일 아침 에든버러 행 우편마차가 글래스고를 출발했다. 마차는 우편물과 승객을 가득 싣고 에든버러로 향했다. 1760년경 그 마차여행은 하루 반나절 걸리는 여정이었다. 스미스는 자주 그 마차 편을 이용해 에든버러를 찾았다. 그는 출발 다음날 정오경에 에든버러에 도착해서 그곳 지인들과 오후 시간을 함께 보낸 다음, 글래스고로 돌아왔다. 같은 대학 동료인 조지프 블랙(Joseph Black), 존 밀라(John Millar) 등과 함께 여행을 떠나기도 했다. 스미스가 자주 에든버러를 방문한 것은 당시 지식인 토론모임인 '명사회(Select Society)'의 정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5장은 이 '명사회'에서 활동한 사람들을 개별적으로 추적하고 그들 사이의 사회적 연결망을 탐사한다. 이밖에 명사회보다 2년 늦게 결성된 '포커 클럽(Poker Club)'과 1760년대에 창설된 '사변협회(Speculative Society)'도 비슷한 방법으로 조사한다. 특히 사변협회에 관해서는, 150년간 이어진 월례발표회 목록을 자료로 삼아 18세기 후반 협회 회원들이 관심을 가진 주제들이 무엇이었는지 탐사한다. 이를 통해 그 시기 에든버러 계몽운동의 지적 분위기를

재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들 여러 모임은 모두가 일종의 담론공동체였다. 이는 이전에 지연과 학연 또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관계망을 통해 비정기적으로 이루어지던 지식인들의 토론 문화가 좀 더 공식적이고 정규적인 활동으로 변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시기의 토론문화와 담론공동체는 계몽운동의 산물이자 그와 동시에 계몽운동을 낳은 바탕이기도 했다. 저명한 문필가뿐만 아니라, 직접 문필활동을 펼치지 않더라도 지식과 인간의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전문직업인, 목사, 의사, 변호사 등 에든버러의 식자층이 이들 모임의 회원들이었다. 이들 정규모임은 엄격한 회원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폐쇄적이었다. 그러나 일부 모임은 자주 공개 토론과 공개강연회를 개최했다. 공개토론에는 에든버러 시민 누구나 방청할 수 있었다. 계몽운동이 문필가와 그 주위를 둘러싼 독자층의 상호관계를 통해 전개된다고 한다면, 18세기 중엽 에든버러야말로 그 전형적인 공간, 즉 문필공화국이었다.

이 장에서는 에든버러 계몽운동의 직접적인 결실이라 할 수 있는,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에든버러 리뷰』의 초기 편집자와 동인들이 바로 ‘명사회’ ‘사변협회’와 직간접으로 관련되고 있다는 점을 밝혀내, 이들 담론공동체가 계몽운동의 활력의 원천임을 강조한다.

#### IV.

이 책 후반부의 6-9장에서 필자는 개별 문필가들의 견해와 사상을 깊이 있게 들춰내기보다는 특정한 주제별로 그들이 공유하는 견해와 관점을 주로 정리하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다보니 이 또한 문필가 개개인의 사상을 피상적으로 훑는 선을 넘어서지 못했다. 다만, 이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인간과 사회를 분석하고 나아가 이를 역사적 맥락에서 이해하려 했다는 전제 아래 인간, 사회, 역사, 근대성 등 핵심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이들의 사유를 재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문필가들이 궁극적으로 고심한 것은 근대성 문제였다. 이들의 문제제기와 탐색이 오늘날 인간과 사회를 이해하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고, 근래의 근대성 비판에 어떻게 관련될 수 있는지를 살피려고 노력했다. 이를 통해 에든버러를 중심으로 하는 이 지식인 운동이 어떻게 후일 영국 문화를 주도할 수 있었는가를 살피려고 한다. 정치·경제적으로 열등한 상태에 있는 작은 나라 지식인들이 어떻게 중심부 문화의 주류가 되었는가를 성찰하려는 것이다.

마지막 10장에서는 18세기 말 19세기 초 에든버러 지식인사회의의 조락과 활력의 상실을 조명한다. 고등교육을 받은 계몽운동 후기의 지식인들은 경쟁적으로 에든버러를 떠났다. 제국의 팽창이 이들의 이주와 관련된다. 재능 있는 젊은 세대의 에든버러 탈출과 함께 계몽운동 또한 활력을 잃는다. 한 사회의 문화적 변영은 그 사회의 경제적 활력과 연결되지 않고서는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계몽운동의 지적 활력이 소진되었다는 것을 에든버러 시민들 다수가 실감할 무렵에 오

히려 이 전통을 조명하고 기념하려는 새로운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상징적이다. 월터 스콧 기념비 조성이 대표적인 사례다. 오늘날 에든버러 곳곳에 남아 있는 기념물과 조형물은 문화는 19세기 계몽운동의 조락과 직접 연결되는 기억의 문화다.

## V.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은 19세기 영국문화뿐만 아니라 유럽문화 일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18세기 후반은 스코틀랜드 역사에서 천재들의 시대였는가? 이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18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후진적이었던 이곳에서 갑자기 창조적인 문화가 번성한 까닭은 무엇인가. 개인의 천재, 개인의 창의성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그 시대 스코틀랜드 사회는 여러 조건들이 서로 맞물린 점점이었다. 내밀한 민족감정이 문화중심주의로 승화되고 있었고, 중앙권력의 부재에 따라 자유로운 분위기가 도시민 사이에 퍼져나갔다. 장로교회의 정책에 힘입어 교육을 중시하는 풍조가 강했다. 지근거리에 있는 4개 대학들이 서로 경쟁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적인 교류를 자극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조건들이 서로 뒤섞이면서 계몽운동을 꽃피웠던 것이다.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은 특정한 시기의 지적, 문화적 개화가 그 나라의 정치나 경제 상황과 어떻게 관련되는가의 문제를 다시 성찰할 기회를 준다. 스코틀랜드 문필가들이 근대사회의 변화와 근대성 문제를 탐구하고 그 주위의 식자층이 활발한 토론의 장과 담론문화에 참여했을 때, 에든버러를 비롯한 스코틀랜드 사회는 경제 변영의 토대가 없었다. 문필가들은 자신의 개인적 기호와 그리고 알게 모르게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문화중심주의의 영향을 받으며 자신의 지적 세계를 개척해나갔다. 주위의 독자와 청중과 지인들 또한 이들 문필가의 저술과 강연을 존중했으며 문필가들이 탐구한 주제에 관해 기꺼이 토론에 참여했다. 참으로 이 문필공화국의 전통은 경제적 변영과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은 한 사회의 지적·문화적 활력이 그것을 떠받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없이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다는 점을 일깨워준다.

이 책은 스코틀랜드 계몽운동을 사회사적으로 재조명하면서도 치명적인 한계를 보여준다. 18세기 유럽 계몽운동의 맥락에서 스코틀랜드의 사례를 검토하지 못한 것이다. 에든버러 계몽지식인들의 지적 기반이 네덜란드와 프랑스 지적 분위기와 연결되는데도 그 관련성을 추적할 수 없었다.